

2000 12 3 !

제 42 호

광
야
소
리

정	영	다	학	복	이	파
소	적	음	교	음	땅	위
년	인	세	들	을	의	웨
사	부	대	을	전	민	이
역	용	의	변	하	는	프
이	을		화	며	정	는
다	위		시		소	년
	한		키		들	에
!			며			게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고등부



친구들 대림절을 아시나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지 않았다면...
.....!

주님
메마른 나무가지 사이로 횡횡 부는 바람 같은
내 삶에 다시 한번 태어나주시기능....
기다려요.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는




예배는 8 50 .

예 배 순 서

“ ”

-  찬 양 찬양팀
-  중보기도 선교팀
-  기 도 학생
-  축하와 환영..... 신도배전도사님
-  말 씀 |도배전도사님
-  헌 금 헌금위원
-  주기도문..... 신도배전도사님

 소그룹..... 모여라 !

살아있다는 것이
산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신의 은혜 만족합니다.
당신의 인도 선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



표준새번역

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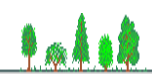
디도서 1:1-9

Titus 1:1-9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고, 경건함 속에 든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려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2. 나는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제때가 되었을 때에 선포 활동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포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4.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 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5.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 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게 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6.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는 비난이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7. 사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폭행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8. 히려 그는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경건하며, 자제력이 있으며,
 9. !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는, 그가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책망할 수 있게 하려 함입니다.

1.Paul,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for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 knowledge of the truth that leads to godliness--
 2.a faith and knowledge resting on the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does not lie, promised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3.and at his appointed season he brought his word to light through the preaching entrusted to me by the command of God our Savior,
 4.To Titus, my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Christ Jesus our Savior.
 5.The reason I left you in Crete was that you might straighten out what was left unfinished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6.An elder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but one wife, a man whose children believe and are not open to the charge of being wild and disobedient.
 7.Since an overseer is entrusted with God's work, he must be blameless--not overbearing, not quick-tempered, not gi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not pursuing dishonest gain.
 8.Rather he must be hospitable, one who loves what is good, who is self-controlled, upright, holy and disciplined.
 9.He must hold firmly to the trustworthy message as it has been taught, so that he can encourage others by sound doctrine and refute those who oppose it.

주말씀 내 발에 등이요



표준새번역

NIV

디도서 1:10~16

Titus 1:10~16

- 10. 꾀종하지 않으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 11. 이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 12. 레타 사람 가운데서 그들의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 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 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하였습니다.
- 13.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 14. 대 사람의 허탄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 15.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까지도 다 더러워졌습니다.
- 16.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 10.For there are many rebellious people, mere talkers and deceivers, especially those of the circumcision group.
- 11.They must be silenced, because they are ruining whole households by teaching things they ought not to teach--and that for the sake of dishonest gain.
- 12.Even one of their own prophets has said, "Cretans are always liars, evil brutes, lazy gluttons."
- 13.This testimony is true. Therefore, rebuke them sharply, so that they will be sound in the faith
- 14.and will pay no attention to Jewish myths or to the commands of those who reject the truth.
- 15.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but to those who are corrupted and do not believe, nothing is pure. In fact, both their minds and consciences are corrupted.
- 16.They claim to know God, but by their actions they deny him. They are detestable, disobedient and unfit for doing anything good.

우리 모두...



2000/11/27(21:54)

작성자 : ,,,, : 93 , : 38

이젠 사실을 말할래요...

안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글을 씁니다
전 파워웨이브 학생입니다.
교회에 아주 잘 나오구요.. !구도 많아요
이글을 제가 쓴걸 알면 많이 실망하겠죠..
이젠 구냥 본론으로 들어가 쓰렵니다.

전요..
담배 술을 매일 같이 하죠..
그리고 여기에 글을 올릴때 마다 아주 가식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교회서 기도하고 예배보는동안도 가식이 넘쳤죠..
...
친구들이 술마시러 가자고 하면 속으론 안가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나서서 마시죠!!!
힘들면 기도하는척 하지만 기도는 안하고 술을 찾구요.....
이젠안되나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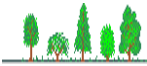
크리스 마스때 예배드려야 하는 내가 친구들이 술마시고 놀자고 했을때 좋다고 맞장구 쳤구요.....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는데!!!
이젠 힘이 없어요...
돌아갈 힘도 없구요... ..

이글을 읽고 기도 하지마세요!!!
전 겁이나요...
하나님을 만난줄 알고 있었던 전... !게 아니었고 그게 모두 가식이었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갈수 없을테니까요..
하지만 교회에는 엄마에게 떠 밀려라도 갈걸요??
예배시간엔 똑 같겠지만...

~~~~~  
이 글을 읽는 친구에게  
위의 친구의 모습이 누구와 닮았다고...  
하면 떨어주시겠어요...?  
친구의 모습이 ... ..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예요.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함... ..  
친구랑 그런게 아니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수 있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친구를 새 생명을 주시기를  
진정 다시 사는 삶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 ♥♥

**Born again in Jesus Christ .....**  
“ 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 ,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17( )”



##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옮김 : 광야소리꾼 허희정

" , ?"

이제 여섯 살밖에 안 된 수지가 엄마에게 물었다.

" 집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갖다주려고 볶음밥을 만드는 중이란다."

" ?"

" . 얼마 전에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한 동안 돌봐 드려야 해."

" ?"

" , 사람들은 아주 슬플 때는 음식을 만든다거나 집안 청소 같은 작은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단다. 리모두는 함께 살아가고 있고, 쏘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생하게도 다시는 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단다. 그러니 너도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줄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겠니?"

수지는 어떻게 하면 아주머니를 돕는 일에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했다. 췌 분 뒤 수지는 이웃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환참 지나서 아주머니기 문을 열고 나왔다.

" , "

수지는 아주머니가 다른 때와 같이 귀에 익은 음악 같은 목소리로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 챘다. 또 울고 있었던 듯하다. 눈이 부어 있고 물기에 젖어 축축했다.

" , ?"

" 마가 그러시는데 아줌마가 딸을 잃어서 가슴에 상처가 났고,

수지는 부끄러워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손에는 일회용 반창고가 들려져 있었다.

" 가슴에 난 상처에 이걸 붙이세요 그러면 금방 나을거예요"

아주머니는 갑자기 목이 메고 눈물이 왈칵 쏟아 졌다. ! 너는 무릎을 꿇고 앉아 수지를 껴안았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다.

" , !! 이반창고가 내 상처를 금방 낫게 해줄꺼야."

아주머니는 상점에 가서 둥근 유리안에 작은 사진을 넣을수 있도록 된 열쇠고리 하나를 사왔다. 그리고 그 유리안에 수지가 준 일회용 밴드를 넣었다. 그것을 볼때마다 자신의 상처가 치료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었다.

낮은 울타리 97.4 .... ..



## 당신을 향한 노래



구성 : 광야소리꾼 구 자 립

나를 받으옵소서..

주찬양7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송명희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당신의 아픔을 내게 담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당신의 고통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당신의 십자가 내게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당신의 죽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당신의 부활을 말하게 하소서



©규정

